

헬로쉽교회

우리 하나되어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맥체인 성경읽기 캠페인

세례식 -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야엘 소개 - 야엘을 아시나요?



www.fellowshipusa.com

우리하나되어

표지사진설명
헬로쉽 교회에서 훈련받는
미래의 목회자
Danny Chung 교육전도사
(정대영 장로/정미영 권사 아들)



CONTENTS | 2010. 1

- 03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 05 유치부 발표 (MD) 12월 27일
- 06 비전스쿨 -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 유종우
- 10 야엘 소개 - 야엘을 아시나요? 외 - 김경숙 외
- 14 선교사편지 - 김승봉, 영선 선교사
- 16 에세이 - 오십견 - 현임
- 18 맥체인 캠페인 - 자녀와 함께 맥체인 - 편집부
- 20 세례식 -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외 - Edward Chung 외
- 23 사도바울 (26) - 고린도로 보내는 4통의 편지 - 오장석
- 28 선교사편지 - 우간다에서 온 소식 - 최승암 선교사
- 30 종족소개 - 숨겨진 땅 다게스탄 - 유종우
- 35 맥체인 성경읽기표

**헬로쉽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D Campus: 18901 WARING STATION RD., GERMANTOWN MD 20874 / 301.444.3100, FAX 301.444.3115
VA Campus: 1439 SHEPARD DR, STERLING VA 20164 / 703.444.5634, FAX 703.444.0567

(제출하신 글이 편집 방향에 따라 수정되거나 게재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발행인: 김원기 *편집위원: 오장석, 이연일, 오진이, 지용한, 이창환, 안선희, 김경숙 *인쇄: KOREA Monitor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21)







Was blind but now I see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글, 정리- 유종우

지난 호에 이어, 비전 스쿨을 마치며 나누었던 간증들을 소개합니다.

김정실: 비전 스쿨 이전에 봐왔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주셔서 헌신하게 되고, 복음을 들어야 할 곳으로 그분들이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전 스쿨을 들은 후에 드는 생각은 ‘이 강의를 듣고 어찌 선교를 하지 않고 살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19-20의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자들이 소명을 받은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전 스쿨은 내 머리를 시원케 하였고, 그 우물의 벽을 탁 트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새롭게 배운 것은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

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기 선교의 긍지를 가지게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14)”라는 말씀을 떠올려 보며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정실: 비전 스쿨을 통해서 머리로는 선교에 대한 산지식들과 산 증언들을 듣게 되었고, 가슴으로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지상 명령이라는 말씀을 다시 새기게 되었고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 여건이 특별히 나아진 것은 없지만 웬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비전 스쿨을 통해 터키 쿠르드족을 품게 해주셨고, 그 종족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단기든, 중장기든 구체적인



DC 메릴랜드 3기 비전 스쿨 졸업 단체 사진



어린이 비전 스쿨



로 그 민족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의 “왜 이제껏 해온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느냐?”는 말에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그 이유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미: 아이들을 여러 번 선교 보내며, 나도 언젠가는 선교를 가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비전 스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닮은 곳에 가서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내가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현지인들을 사귀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10/40 원도우와 미전도 종족들에 대해 듣고 그 종족들에 대해 선명하게 알게 되어 그 종족들이 가깝게 느껴지게 되었고, 또한 선교사님들이나 간사님들의 그 종족들을 향한 깊은 열정을 느끼며, 투르크족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주신은 사들을 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함께 섬겨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 강의는 제 영적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담대한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스림의 권세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도 꼭 가고 싶습니다.

이혜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등록을 하고, 죽어도 꼭 간다는 마음으로 비전 스쿨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새로 접하게 되었고, 간사님들의 섬김 또한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비전 스쿨을 통해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

습니다. 열방을 알지 못했던 내게 하나님께서 슬픈 눈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는 그곳을 저에게도 보여 주셨습니다. 그 심령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무슬림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권능으로 주심을 인정합니다.

정선주: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내 작은 영역에 하나님을 가두어서 더 이상 전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내 주변만을 위해 기도해온 자신을 발견하며, 먼 이곳 미국까지 나를 보내서 더 먼 곳을 바라볼 수는 없냐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말씀은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아예 처음부터 무리라고 체쳐 두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0/40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있는 훈련생들

윈도우는 충격이었습니다.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BTJ 이것 역시 놀라웠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들도 꼭 해야만 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비전 스쿨을 통해 내가 만든 틀로부터 해방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품게 된 쿠르드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대훈: 비전 스쿨을 들으면서 이슬람권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장기 선교사와 단기 선교사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이름 없이 피 흘린 선교사님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외로 교회내의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꼭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장대창: 아내의 오랜 권유로 비전 스쿨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았지만 비전 스쿨은 확실히 뭔가가 달랐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10/40 윈도우의 수많은 민족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러한 곳들을 이미 다녀와서 자기 고향집 얘기하듯 하시는 선교사님들이나 간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니 스스로 창피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장경희: 비전 스쿨은 작년부터 기회가 되면 한 번 들어봐야겠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 학기에 작정하고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비전 스쿨을 통하여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 속에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길 원하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달려가는 영적인 카멜레온이 되어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조복희: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보거나 들어보지 못했는데 비전 스쿨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들을 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선교는 특별히 소명 받은 분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부터 소외되고 닫혀 있는 민족들이 그렇게 많은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선교사님의



조별 모임으로 토론을 나누고 있다.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며 누군가가 저들에게 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같은 아줌마 부대도 동일하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전 스쿨을 통하여 이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며, 주님의 눈으로 열방을 바라보게 되었고 무엇보다 제 안에 있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유영연: 선교는 부르심 받은 분들만 하는 것이고, 저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마단 기간 중 어느 날 교회 주보 간지로 나간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전단지를 읽고 울며 중보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정보지를 통하여 접하게 된 파키스탄 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품고 기도하게 되었고, 비전 스쿨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전 스쿨을 들으며 새로 접하게 되었던 종족들과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한 정보들이 감사하기만 했고, 아줌마로서의 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면서 아줌마로서의 자존감도 확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비전 스쿨을 통해서 나의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확 바뀌게 되었고, 주변 분들에게 비전 스쿨은 꼭 들어야 한다고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꼭 파키스탄에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김경자: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의 권면으로 비전 스쿨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들을 들으며 이슬람에 대해 알게 되었고, 미전도 종족들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와, 하나님의 모든 민족에 대한 영혼 구원 의지와, 사단의 끊임없는 방해로 알게 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다를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달력을 보고 기도하던 중 자연스럽게 예뻐를 품고 기도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소원은 처음부터 언제나 모든 민족의 구원과 회복임을 알았기에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미전도 종족들을 기도로부터 섬길 것을 다짐해 봅니다.


방인선: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과정을 배우면서 감동이 많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비전 스쿨을 통해 알게 된 이슬람권 여성들의 상황을 보며, 100년 전 한국 여성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단기 선교 가서 단순히 함께 울어만 줘도 그 서러움이 풀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함께 가서 그 서러움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미전도 종족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미전도 종족들을 향한 그분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 저는 선뜻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를 품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노영경: 비전 스쿨을 시작하기 전에 전 영적인 무기력함과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전 스쿨을 들으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과 오해들을 풀 수 있었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에서 소외된 미전도 종족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깨달았고, 이제는 내가 받을 생각을 하기 보다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소담: 비전 스쿨을 통해 어른 세대가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으로 열방을 품고 기도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메릴랜드 땅 가운데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비전 스쿨은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관점이 바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오픈 강의 때 들었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를 듣는 순간 뭔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전에 드렸던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써 주소서”라고 했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의 관점과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전 스쿨을 통해 처음 들어보는 나라들과 종족들이 있음이 조금은 부끄럽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종족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 경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임을 알게 되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품은 터키와 남편이 품은 이란을 놓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품은 터키가, 아니 전 세계의 모든 미전도 종족들이 주께 돌아올 날을 설렘으로 기다려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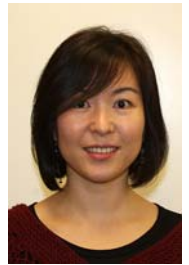


졸업생 축복과 파송의 시간



야엘을 아시나요?

글 - 김경숙



야엘은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성 이름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 걸쳐 잠깐 등장하지만, 그녀가 장막을 지키기 위해 한 행위(가나안 군대의 지휘관 시스라의 머리를 말뚝으로 박아 뚫었습니다. 사4:21)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장면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아주 순종적이거나, 아주 지혜롭거나 하는 긍정적인 부류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남성을 유혹하거나 자녀를 생산하는 역할 등 다소 부정적이고 미미한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에 비해, 야엘은 아주 신선하고 강한 캐릭터로 여성들에게 색다른 도전을 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엘을 통해 이루신 승리는, 분명 전형적인 한 가정의 주부로서의 역할, 그 이상이었습니다. 무려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온 시스라가 한 여성, 야엘에 의해 가장 끔찍한 종말을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이 야엘은, 매주 목요일에 있는 우리 교회 여성 모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야엘에 모이는 분들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성경적 배경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엘 모임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남편 되시는 분이 돈 벌어오라고 등 떠미는 분도 있습니다. 저처럼 미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2살, 3살 아이들을 위해 스토리 타임 등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다녀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모든 세상적인 일 대신 헬로쉽 장막에 모이는 걸 선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여성들에게 한 가정의 주부로서의 역할 이상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야엘 모임이 그저 사랑방의 수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군대의 여전사를 키우는 발판이 되길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알고 따르는 것이 야엘의 소망입니다.

이번 학기 야엘은 예레미야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딸아이와 남편을 위한 아침 사역이 끝나면(^^) 저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엘에서 받아온 ‘매일성경’을 펴놓고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기쁨을 부으시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이 저의 질투심을 살짝 자극합니다. 그래서 전 더 많은 것을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가슴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마음을 네 가슴에 담았노라. (^^)’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 묵상을 하고 야엘에서 그 내용을 나눕니다.

야엘에서 만나는 여러 신앙 선배들, 인생 선배들의 간증을 듣고 있노라면, 정말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여전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가운데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자매님도 있습니다. 혹은 장애의 부모님을 두신 분도 있습니다. 혹은 이혼의 아픔을 겪고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약점들로 그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약점들은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던 것처럼, 다투어 견게 했던 시련처럼 그 약한 것들로 인해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큰 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더 풍족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 상처를 다 치유 받고 진정 자유로워진 모습은 적과 싸워 이긴 개선장군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새 갑옷으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무수한 열방을 향해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 열방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으로 채워질 때까지 우리의 전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 묵상의 달인이 되기 위한 제 나름의 묵상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하루 일과 시작 전에 반드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떼어둔다.

둘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내 삶으로 끌어내어 나랑 친밀한 관계를 만든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난 느헤미야가 너무 멋져. 담대함과 신중함이 빈틈이 없어 보여. 나중에 아들을 낳으면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지을까? 혹은, 나에게도 요나단 같은 믿음의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등.

셋째,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내가 행동으로 옮길 행동 지침을 하나 건져낸다.

넷째, 하루가 끝나는 시간에 그 말씀을 한번이라도 실행했는지 점검하고 기도한다.

이런 묵상의 날이 거듭되면 언젠가는 묵상의 달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부쩍 가까이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이 모든 비바람을 이겨낸 결정체인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한 우리 삶의 결정체로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야엘의 향기가 온 회교를, 온 지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이제 야엘이 잠시 방학을 갖습니다. 벌써부터 개학이 기다려지는 건 야엘이 참 좋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

영적인 시원한 샘물

글 - 이용원 (Covenant Life Church)

제가 이 교회 교인도 아니고 야엘 모임에 나온 지 두 달 밖에 안 되고 다른 믿음 좋으신 분들도 많은데 저 보고 간증을 하라고 하셔서 처음엔 좀 당혹스러웠지만, 이 모임이 제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어제 묵상한 딤후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아서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




라 이것을 위해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이다”라는 구절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간증하는 것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결혼 전까지는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고등학교와 대학생 때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도 했지만 여전히 실수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남편을 만나 결혼 후 미국에 와서 지난 5년간 제 생활은 다른 여러 면에서는 안정되었으나 믿음은 많이 나태해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차가 없어 그냥 주일에 남편과 대예배만 참석하다가 나중엔 차도 생기고 돌아다닐만 해지니 딸 둘이 생겨 어떨 땐 대예배 설교 말씀도 제대로 듣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한 집에서 애들 돌하고 있으니 스트레스가 쌓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주위에 믿음의 친구들이 생기고 나름 혼자 큐티도 한다고 했지만 잘 안 되었고 웬지 모를 답답함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 딸과 같은 반인 민우의 엄마 슬기씨가 작년에 제게 이 모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나갈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지난 9월 초에 제게 개인적으로 좀 속상한 일이 생겨서 슬기씨와 통화도 하고 그러다가 슬기씨가 갑자기 파네라에서 차를 한 잔 하라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 오는 날 따뜻한 우유를 사주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슬기씨가 너무 고마웠고 다시 한 번 야엘 모임을 권유해서 이제 둘째 딸도 좀 컸으니 한 번 가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이들과 떨어져, 여성들만 있고 또 목사님도 여자 분이신 여성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니 마음도 편하고 말씀들이 쏙쏙 잘 들어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아이들을 봐 주시는 집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슬기씨가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평소에 보지 못한 새로운 모습에 놀랐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각 지체들과 참석하시는 각기 다른 연령대의 어머님들의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설교 말씀을 통해 제 영적인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았고 큐티 그룹을 통해 말씀과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비슷한 나이의 믿음의 친구들이 생겨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맛있는 베이글과 과일, 만두, 커피도 너무 좋았고요. 지금은 애들 때문에 참석하기는 어렵지만 스페니쉬와 종이접기 클래스가 있는 것도 좋아보였습니다.

현재 저는 매일 큐티를 하고 지난 주에 나눴던 말씀들을 한 주간의 삶에 적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딸들과도 비교적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위에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모임을 권하고 싶어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는데 한 예로, 지난 주에 한 자매님이 기침을 심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제 맘속에 그 자매님에게 따뜻한 국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집도 가깝고 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엿그제 저도 몸살이 나서 앓아 누워있었더니 생각지도 않게 남편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다 주고 애들 목욕도 시켜주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날’ 같다고 고맙다고 하니,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내에게 소홀히 했으니 잘 해주라고 그러시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다니는 교회에서도 과감하게 아이들을 아이들 반에 맡겨놓고 새신자반 9주 교육을 시작하여 정식 교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이 모임에 나오면서 영적인 시원한 샘물을 마시는 느낌이었고, 여성의 중요성과 파워를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 모임에 잘 나오고 싶고, 신앙과 생활이 더 성숙해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엄마와 아내 그리고 딸과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No에서 순종으로...

글 - 오영선

사실 저는 ‘No’를 잘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거절을 못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봤었는데 저는 그 점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누구든 상관없이 부담스러운 거는 딱 질색이고 그렇지요. 그런 제가 간증을 하러 나온 이유는



제가 지금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조진숙 목사님께서 간증을 부탁하셔서이기도 했지만, 제 마음 속에서 성령님께서 제게 순종을 배우라고 하시는 걸 느꼈기 때문이에요. 뭐, 그렇다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순종’이었으니까요.

물론 이 야엘 모임이 저에겐 너무도 감사하고 즐겁고 또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사모합니다. 하지만 간증이라는 것을 할 만큼 제 자신은 정말로 준비되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별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 모임을 어떻게 나오게 되었고, 이 모임을 통해 배우고 느끼고 변화 받고 있는 것들을 나누기로 했어요.

우선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라 결혼한 지는 한 14년이 되었고 딸 셋을 둔 전업 주부입니다. 미국에는 6학년 때 왔구요. 구원의 확신과 세례는 6학년 말 쯤에 받았어요. 세례 동기는 아마 ‘휴거’라는 책을 읽은 후에 두려움 때문에 확신을 얻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큰 계기에 의해서는 아니었지만 그 나이에든 제게는 나름대로의 주님과 체험들이 있었고 주님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고 제가 주님을 찾고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 믿음의 틀이 고등학교 시절 많이 잡혔다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주님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시절 제게 걸림돌은 말씀에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들과 제 삶의 주인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문제였죠. 물론 그 사이에도 제가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을 찾고 응답을 받는 체험도 했었지만 또 지내보면 ‘그랬었나?’ 하며 잊어버리고 제 삶은 온전히 제 의지고 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교회는 가끔씩 잊혀질 만하면 가는 곳이 되다가 “지금은 방학 중이에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또 그렇게 긴 세월을 보냈어요. 결혼 7년 후 아이를 낳고, 프레데릭으로 이사를 한 후, 내 아이를 하나님 모르게 키우면 안 된다는 불안함에 2004년 초 헬로쉽 교회를 다시 찾게 되었어요. 그런 후 알게 되었지요. 그간 내게 있었던 상황과는 상관없이 채워지지 않았던 허망함과 공허함이 왜 있었는지 느끼게 되고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시원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습관이 되지 않은 교회 출석은 많이 힘들었고 맨날 늦거나 빠지곤 했어요. 그럼에도 별로 변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고 그나마 나오는 걸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실 거라는 생각과 또 한편

으로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나를 지겨워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과 혜택을 누리는데 건 당연하지만 제 의무와 책임 등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이상 꼭 확인받고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아주 ‘짜가지 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주님은 정말로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그저 잠잠히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저는 오이코스를 통해 조금씩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아이 키우느라고 정신없이 세월은 흘렀고 큰 아이가 4살, 둘째 아이가 1살 반 정도 되었을 때 (2006년)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산다면 무엇인가 잘못될 거라는 불안감이 왔었죠. 그러던 중 2007년쯤 우연히 고마운 집사님들 덕분에 소그룹 큐티 모임을 저희 집에서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훈육하는 책도 같이 읽게 되었어요. (그 훈육들은 사실 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의 많은 부족함으로 인해서 힘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도 많은 것을 알게 해 준 소중한 모임이었는데 방학이 되면서 중단되었지요. 하지만 이미 큐티 모임의 맛을 본 저는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오이코스 식구들을 통해 야엘을 알게 되었고 너무도 반가웠어요.

제게 야엘은 너무도 고맙고 즐거운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간 막혔던 큐티 모임을 다시 할 수 있었고 그때 그때 주시는 여성 사역을 위한 설교 말씀들은 너무나 제게 필요하고 갈망했던 것들이었어요. 찬양을 별로 즐기지 않았지만 찬양의 기쁨도 조금은 알게 되면서 마치 잠들었던 저를 깨우는 듯 했어요.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부분이 야엘 모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나의 본분을 이해하고 변해갈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큰 은혜예요. 무엇보다도 야엘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잘 만져지지 않은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제게 있었어요.

오이코스, 야엘, 교회 클래스 등을 통해 총체적으로 그간 잃어버리고 낭비한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하고 변질시켰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두 가지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부르짖다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멀리해도

괜찮다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어차피 내가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분으로 넘 멀리해도 (그러면 구원을 잃을 수 있기에) 너무 가까이 해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줄 수 없고 주기 싫은 것들을 자꾸 더 내 놓으라고 하고 나를 ‘거지’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서 ‘기뻐해야 한다고’ 해야 할 것 같아서.. 원래 부모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해주는 사람에게 계속 더 요구하는 법이니까..) 하며 제 나름대로의 꽤 현명하다고 생각한 ‘안전거리’를 주님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지 않아서 생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관계로 제가 주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런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저는 엄마가 되고 아이를 키우면서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았지요. 그래서 내가 내세우는 많은 이기적인 요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도 생각하게 되고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면서 느끼는 엄청난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순종’과 비슷한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을 때 그것을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오는 엄청난 편안함을 알게 되고 ‘역시 주님은 다 아시는구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이라는 간증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제 모습이 하루 빨리 변하기를 바랐는데, 제 마음과 생각과는 달리 별로 달라지지 않은 저의 모습은 저를 좌절하게 만들고 화가 나고 실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제가 또 하나님을 앞서서 제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조금하지 않게 천천히 저를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제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 지금 주님에게 나아가는 ‘성화 과정’ 중에 있고 ‘Work in progress’인 상태이지 완성된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그 과정을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중이란 것을.. 그리고 저뿐만이 아닌 저의 남편과 아이들과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기다리고 감사하는 여유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아직도 씨름 중이긴 하지만...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이 야엘 모임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 축복의 모임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야엘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김 승 봉 선교사 / Daniel & Ruth Kim SICAPministry@hotmail.com
P.O. Box 29, Calbayog City, Samar, Philippines, 63-918-919-8278



무릎선교사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서너 번 기도편지를 쓰다 보니 올해도 다 지나가고 정신이 바짝 드는 계절이 되어 또 성탄과 새해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힘이 되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10월에는 저희 GP선교회 구조 조정 이후 처음으로 리더십 회의가 LA에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적은 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모임이어서 조촐하고 정돈된 모습의 회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1월엔 권역대표가 되고 처음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권역의 몇몇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저 이름만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들을 직접 그들의 사역지와 가정에서 교제하게 될 때 주고받는 느낌은 관계형성에 가장 필요한 부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 근처에서 사역하는 졸업생 부부가 찾아 와 11월 1일 주일 저녁 지역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니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 듣고는 반문하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날이니... 11월 1일, 'All Saints Day'는 우리의 한식날처럼 죽은 영혼이 자기의 무덤을 찾아 온다하여 온 가족이 돌아가신 부모, 친척의 묘지에 모여 먹고 마시며 하루를 지내는 큰 명절이라 집회 인원 동원이 거의 불가능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날 저녁 그 지역까지 가는 길에 세군데 묘지구역을 지나게 됩니다. 처음 두 구역은 차가 지나기 힘들 정도로 붐비어 겨우 빠져 지나갔으나 세 번째 구역은 너무도 한산하여 어떻게 이럴 수가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집회 장소에 도착해보니 근 1,2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뻘뻘하게 차있었습니다. 엄청난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로 인해... 단 위에서 군중을 호령하는 그를 보면서, 순간 그 아이는 커 보이고 나 자신은 아주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또 알고 감사하게 된 것이 "바로 이거지.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하

고 반대로 우리 아이들은 점점 커져야지."

큰아이 지혜가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간호대학은 졸업할 때 'Pinning'이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유니폼에 다는 학교 핀(배지와 비슷한)을 받게 됩니다. 선배인 엄마가 후배인 딸에게 핀을 달아주면 뜻 깊은 행사가 될 테니 꼭 와 달라는 아이의 요청을 거절 할 수 없어서 12월 초, 한 열흘 워싱턴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선교사를 영세민 취급하는 미국 정부의 시스템을 잘 이용하여 혼자 힘으로 대학 등록금을 감당한 딸이 너무도 대견하였습니다. 2월부터 출근할 직장도 정해졌으니 두 아이에 대한 시름은 이제 반쯤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감사함의 조건들이 여러분의 무릎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이 귀한 계절에 저희 씨잡 가족들의 성탄 축하와 새해 인사를 사진을 통해 전하며...

Maupay nga Pasko ngan Mainuswagon nga Bag-o nga Tuig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김승봉/유영선, 지혜와 노아

김승봉/유영선 선교사

기도제목

12/08

1. 1월 9일부터 23일까지 헬로쉽교회 영어권 단기팀과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방주교회 중고등부 단기팀 사역을 통해 멤버들이 열방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도록

2. 2월 중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선교지를 돌아볼 텐데 지혜와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도록

3. G-12사역을 통해서 졸업생들의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조금씩 타 오르고 있는데 큰 불이 되어 지역으로 번져가도록

4. 씨잡의 온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는 능력의 삶을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도록

아내선교사 코너

한국서 유행하는 말 중에 ‘엄친아들(딸)’이라는 말이 있는데, 엄마 친구의 자식으로 공부를 아주 잘한다든지, 잘 생겼다든지, 하여튼 무언가에 뛰어나 늘 부러운 엄마가 평범한 자신의 아이와 비교하는 잘 난 남의 집 자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딸 지혜는 ‘엄친딸’은 아니고 그냥 ‘엄딸(엄마 딸)’이다. 우리 ‘엄딸’은 머리가 비상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아니고, 늘씬한 미스코리아 감도 아니지만,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열정은 이 엄마보다 더 뛰어날 때가 있다. 그런 우리 ‘엄딸’이 대학을 졸업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던 92년 가을, 우리 부부는 소명을 받게 되었고, 그 소명이란 걸 받은 후 엄마인 나는 하나님과 큰 씨름을 했었다. 조기유학 바람이 슬슬 불던 때인데 미국서 태어나 자란 어린 것들을 데리고 선교지로 간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를 넘어서 약간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도 있었으니... 자식을 등에 업고 엄마와 하나님과의 씨름 기간 중 꼭 두 번 주님은 아주 또렷하게 당신의 음성을 자식 때문에 귀먹은 엄마에게 들려주셨다.

이 고통의 씨름 기간 중 차를 몰고 아이의 학교 앞을 지난 적이 있는데 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저 학교에서 빼내어 그 댐 어딘지도 모르는 선교지로 도저히 끌고 갈 수 없을 것 같았기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 못하

고 차를 옆으로 세워 놓고 엉엉 울며 소리쳤다. “주님, 부모에겐 소명이란 것이 그저 부모를 따라가야 하는 아이들에겐 저주가 아닙니까?” 얼마를 울었을까... 가만히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 “Look at Ruth Bell Graham.”(루스 벨 그래함을 보라)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루스 벨 그래함은 또 뭐야 하며 정신을 가다듬고 가만히 생각을 모아 보았다. 루스 벨 그래함, 아! 빌리 그래함 목사님의 사모님... 그런데... 더 생각을 더듬어보니 그 3 때가 그 분의 수필집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의사선교사였던 아버지와의 어머니를 따라 중국에서 태어난 ‘MK’였던 사모님이 평양서 미션스쿨을 다닐 때 쓰셨던 글을 모아 놓은 책이었다. 그 때 주님은 그래함 목사님이 천국서 받을 큰 상을 사모님도 똑 같이 받을 것이며, MK(선교사자녀) 됨이 저주가 아니라 큰 축복이라는 음성과 함께 주신 말씀이 바로 **“내 은혜가 너희와 너희 두 자녀에게 족하도다.”** 고후 12:9절의 말씀이었다.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소명 후 몇 개월을 내 등에서 나를 눌렀던 자식이라는 짐이 신기하게도 녹아 없어져내려 훨씬 가벼운 소명이 되었다.



또 몇 개월 후, 병원으로 출근할 때 항상 듣는 “Gateway to Joy”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을 때였다. 그것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엘리자베트 사모님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날따라 두 분 사이의 딸, 벨러리(이 분은 아버지 엘리엇 선교사님이 에쿠아도르에서 부족인의 창에 맞아 돌아가셨을 때 생후 몇 개월 된 애기였다)와 모녀간의 자녀양육에 대한 대담 시간 중 나의 가슴을 찢었던 한마디 “The goal of being Christian Parents is Not to raise happy children, but to raise godly children.”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의 목적은 행복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행복한 아이를 키우는데 미국처럼 좋은 환경이 또 어디 있을까? 좋은 음식, 좋은 장난감, 좋은 교육... 하지만 행복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가 마음 깊숙한 데서 넘쳐나는 것이었다. 그 날 나는 완전히 자식의 짐을 벗었다.

지난 십 수 년간 일찍부터 아이들을 품에서 떼어 내는 일을 가장 큰 아픔으로 여기는 엄마를 딸은 철이 들어가며 이렇게 위로했다.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려야 하고, 그래서 그게 나한테는 큰 축복이 되는 거야.” 우리 ‘엄딸’은 일류대학을 나온 재원도 아니요, ‘엄친딸’이 될 만한 대단한 조건을 가진 아이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을 쫓아 세상을 헤쳐 나가는 탁월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딸로 성장한 것이 우리 부부에게는 가장 큰 축한 은혜가 된 것이다.

요즈음 와서 가끔 사람들로부터 자식을 잘 키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부부는 할 말이 없다. 특별히 이런 것이 신앙의 1, 2, 3이다 가르치며 키운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도 멀어지고 코를 깨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애를 썼더니 아이들도 언제부터인가 저희들 나름대로 그 길을 쫓아가더라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축한 은혜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후12:9 a

오십견

글 - 현임



오십이 이미 지나고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 칠순의 나이에 오십견이 내게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몇 달 전부터 양쪽 팔이 아프기 시작했다. 특히 왼쪽 팔이 심하게 아팠다. 주치의의 지시대로 두어 달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었다. 전문의를 찾아갔다. 전문의는 ‘엠알아이(MRI: 자기공명영상)’를 찍어야 한다고 해서 ‘엠알아이’를 찍었다.

검사 결과 어깨 속 조직이 찢어져서 수술해야 한다 했다. 어떻게 속이 찢어질 수 있는지 의아해서 물었다. 만일 이유를 굳이 붙인다면 알레르기 주사를 삼 년 동안 왼쪽 팔에만 맞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아픈 팔로 잠 시나마 손너를 봐준 탓일까? 파란 눈의 의사 왈, “나도 이유는 모른다” 했다.

칠순에 만난 오십견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수술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찜찜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와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수술시간표를 짜는 사무원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이 수술은 간단한 거라 했다. 한 2.5센티미터 정도를 찢는 다 했다. 수술은 삼 주 후로 정해졌다. 막상 수술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보니 삼 주가 너무 긴 것 같았다.

드디어 수술 날이 되었다. 의사가 지시한 대로 밤 열두 시부터 굶고 아침 여섯 시에 사위 차를 타고 병원에 가면서 수술에 대해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떠올랐다. 집도하는 의사를 도와서 수술이 잘 되게 해 달라고 마음속으로 간단하게 기도했다. 원래 크게 울부짖는 성격도 아니지만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무시로 마음으로 하는 기도다.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까지 아시는 분이시니 크게 울부짖지 않았다.

아직 문은 열지 않았지만 차 한 대가 주차장에 있는 것이 보였다. 우리가 도착하자 사무직원인 듯한 여인이 차에서 내렸다. 문을 열어주며 들어오라 하여 사위

를 보내고 그녀를 따라 들어갔다. 간단한 문답이 오가고 그녀는 내 팔목에 이름을 쓴 하얀 손목걸이와 알러지에 대해 쓴 빨간 손목걸이를 쇠고랑처럼 채웠다. 수술할 시간이 가까워 오자 간호사가 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눕히고 병력이며 수술 전 피검사한 것들을 다 점검하고는 오른손 등에 있는 굵은 정맥을 골라 링거를 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원래 22년 전 오른쪽 유방암을 수술했기에 외과 의사는 22년 후인 지금에도 알러지 주사를 오른쪽에 놓지 못하게 했었다. 하지만 왼쪽 어깨를 수술해야 하니 오른쪽 팔을 쓸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링거가 차가워서 온 몸이 추웠다. 간호사는 따뜻한 담요를 두어 개 더 덮어 주었다. 드디어 마취 의사가 오더니 이 어깨 수술은 굉장히 아프니 신경을 먼저 죽여야 한다고 했다. 수술 후 이틀간은 몹시 아프기 때문이란다. 나를 재워놓고 신경을 죽이느냐고 하니 잠들기 전에 먼저 신경을 마비시켜야 한댄다. 그래야 신경이 완전히 마비 상태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댄다. 나는 신경마비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바늘을 무척 싫어하는 데다 피부에 몽혼주사를 놓을 때 심하게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시술을 할 파란 눈의 의사가 들어왔다. 왼쪽 팔의 신경을 꼭 마비시켜야 하나니까 그러면 좋겠댄다. 잠시 생각하다가 그래도 신경 죽이는 것은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 했다. 그런데 몸이 가렵기 시작했다. 전에는 항생제를 맞아서 부작용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알러지가 생겼나보다.

몸이 가렵다니까 마취사가 가려운 데를 검사해 보더니 ‘베네드릴(benedryl)’이란 약을 혈관으로 쏴서 가려움은 차츰 없어지는데 줄리기 시작했다. 조는 나를 그들은 수술실로 밀고 가서는 수술대로 옮겨 누우라는데 반쯤 자던 나는 무슨 소리인지를 잠시 깨닫지

를 못했다. 그들이 다시 일깨워 주니 그때야 수술대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수술대로 옮겨 눕고 나서 곧 잠이 들어버렸다.

그리고 간호사가 와서 무엇을 마시겠느냐고 깨울 때까지 계속 잤나보다. 전신마취 때문에 목구멍이 아프고 아직도 몸을 가눌 수 없이 졸렸다. 간호사가 주는 사과 주스를 마시는데 언제 연락을 했는지 미리 부탁했던 선교사님과 친구가 데리러 왔다. 아직 잠이 반도 안 깬 상태에서 그들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내 침대에 눕자마자 나는 깊은 잠에 빠졌다. 몇 시간을 잤는지 깬다가는 또 잠들었다. 그게 수술 첫 날이었다. 두겹게 테이프로 고정해 놓은 왼쪽 어깨와 팔은 아무지게도 고정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통증이 하나도 없었다. 몹시 아픈 수술이니 신경을 죽이던 의사들, 두겹게 고정해 놓은 어깨와 팔을 봐서는 틀림없이 수술을 하긴 했는데 통증이 없다. 시술한 의사는 진통제 처방을 줬지만 가서 사오지도 않았다. 수술한 지 하루가 지나니 전날 고정했던 것이 뻑뻑함이 없어지고 부기가 좀 빠졌는지 어깨와 팔을 고정한 게 느슨해졌다.


통증은 아직도 없다. 회안하다. 의사가 내 어깨를 간지르고 말았나? 둘째 날 오후 늦게 수술실 간호사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다. 통증이 하나도 없단니까 간호사가 깜짝 놀란다. “그럴 수가?..” 간호사는 통증이 없다는 걸 믿을 수 없는 눈치였다. 하지만 사실이였다.

수술 후 나흘째 되는 날, 의사의 지시대로 의사 사무실 첫 방문을 했다. 얼마나 아프냐고 묻는 의사에게 통증이 하나도 없단니까 의사 또한 놀란다. 의사는 두겹게 찢던 가제와 테이프를 떼어버리고 가벼운 드레싱을 했다. 그러면서 sling은 한 이 주일 더 하라했다. 그리고 샤워를 해도 된다 했다. 집에 오자마자 수술한 부위를 플라스틱으로 가리고 한 손으로 샤워를 했다. 두 손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 것 같았다.

보통 일주일이면 염증이 생기지 않는 한 조직은 붙기 마련이기 때문에 꽤 괜찮을 실을 뽑는데, 주일이 끼어있고 하다 보니 11일 만에 실밥을 뽑았다. 그중에 긴 실밥을 뽑을 땐 아팠다. 2.5센티미터 찢는다면 수술 자국은 6센티미터나 됐다. 그리고 두세 군데 구멍을 뚫은 자국이 있었다. 사무원의 말은 맞지 않았다. 실밥은 뽑았지만 왼쪽 팔은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낫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루는 손목을 움직일 수 있었고 그 다음 날은 손이 조금 올라갔고 눈에 보일 정도로 회복이 빠른 것 같았다. 게다가 물리치료도 시작했으니 회복은 더욱 빠르다. 물리치료 때 통증이 있어 수술 후 처음으로 타이레놀을 한 알 먹었다.

하지만 수술 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수술 전에는 타이레놀을 네 시간마다 먹어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서 아예 먹는 것을 중단하기까지 했었다. 수술 전 운전할 때나 옷을 입을 때나 “아구구, 아구구” 하고 절로 비명이 흘러 나왔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통증이 없는 게 참 신기하다. 내가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었다. 칼로 찢고 구멍을 몇 개나 내서 찢어진 조직을 붙였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다니.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떠올랐다. 작자 미상이라 했던 내가 좋아하는 ‘발자국’이란 시도 떠올랐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나의 아픔을 주님이 대신 아파주셨구나!’ 감사의 기도가 절로 흘러나왔다.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그 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수술을 받고 삼 주. 왼쪽 팔을 이제 머리까지 올릴 수 있어 한 팔로만 감던 머리를 두 손으로 감을 수 있으니 다음 주에는 머리도 예전같이 만질 수 있을 테고 오십견 아니 칠십견에게 ‘굿 바이’ 할 날도 멀지 않았다. 

Footprints in the Sand

One night I dreamed I was walking along the beach with the Lord.
Many scenes from my life flashed across the sky.
In each scene I noticed footprints in the sand.
Sometimes there were two sets of footprints,
other times there were one set of footprints.
This bothered me because I noticed
that during the low periods of my life,
when I was suffering from
anguish, sorrow or defeat,
I could see only one set of footprints.
So I said to the Lord,
"You promised me Lord,
that if I followed you,
you would walk with me always.
But I have noticed that during the most trying
periods of my life
there have only been one set of footprints in the sand.
Why, when I needed you most, you have not
been there for me?"
The Lord replied,
"The times when you have seen only one set of
footprints in the sand,
is when I carried you."

자녀와 함께 맥체인


글 - 편집부

헬로쉽 교회 티모시에 속해 있는 김민수 학생은 6학년부터 12학년에 이르는 104명의 티모시 그룹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일주일에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있는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아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일 성경을 읽는 학생의 대부분(12명 중 11명)은 부모가 성경을 읽도록 비교적 장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한 명의 예외적인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12학년 학생이었다. 티모시 그룹에서 제일 성숙한 학년임을 생각할 때, 부모의 장려 없이도 스스로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나이다. 비록 매일 성경을 읽는 전체 학생 수가 적지만, 부모의 장려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을 읽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비슷하다. 전체 34명의 학생 중 32명의 학생들이 부모의 장려도가 5 이상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는데 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수를 놓고 비교하면 부모의 장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주일에 3번 이하로 읽는 학생의 수는 57명으로 설문 조사에 참여했던 전체 학생 수의 55%에 달한다. 그런데 57명 중 40명의 경우(70%), 부모의 장려도가 5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즉, 부모의 장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을 자주 읽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부모의 장려도가 5 이상이었던 학생들 중 절반(83명 중 40명) 가량이 일주일에 3번 이하로 성경을 읽었다. 다시 말해, 성경을 읽으라고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자녀와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성경은 삶의 지침서이다. 즉, 성경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책이기에,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도 없이 모르는 길을 찾아가겠다고 억지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점에서, 어려서부터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지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많은 기독교인이 새해가 되면 성경 일독을 결심한다. 헬로쉽 교회에서도 새해가 되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나누어주며 성경 일독을 장려한다. ‘우리하나되어’에서도 매월 그 달에 읽어야 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뒤표지 안쪽에 게재하고 있다. 올해도 많은 교우들이 성경 일독에 도전하리라 믿는다. 그런데 올해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가족이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자녀들도 매일 성경을 읽으며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한다면, ‘말’보다 ‘행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에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전체 (총 104명)

P.E.	1	2	3	4	5	6	7	8	9	10
Everyday		1			1	2		3	1	4
$7 > x \geq 3$		1	1		3	3	6	7	3	10
$x < 3$	10		2	5	7	5	7	8	5	8

항목 설명

P.E. (Parental encouragement, 부모의 장려도) - 1: 최소한의 장려, 10: 최대한의 장려

Everyday : 매일 성경을 읽는다.

$7 > x \geq 3$: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읽는다. 하지만 매일은 아니다.

$x < 3$: 일주일에 3번 이하로 읽는다.



2010년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읽기를 이렇게 추천합니다

1. 전 가족이 ‘맥체인 성경읽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나 분량은 각자의 신앙 상태나 영적 성숙도에 맞게 하십시오. 즉 부모는 하루에 4장을 다 읽는다면 어린아이는 한 장만 읽는다는지, 같은 어른이라도 남편은 4장 아내는 2장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읽느냐(분량)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읽느냐입니다.
2. 날마다 읽은 것을 서로 점검하십시오. 냉장고에 도표를 붙여 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3. 좋은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읽으십시오. 한 달에 한 권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두 달에 한 권도 좋습니다. 어쨌든 독서의 습관을 키우십시오.
4.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공부에 참석하십시오.

2010 Bible Reading Recommendations

We recommend you read the Bible as follows for your spiritual growth in 2010. 1. Start reading the Bible by following the M'Cheyne Bible reading table. However, how much you read may depend on your individual level of faith and spiritual maturity.

1. For instance, if parents read four chapters a day, children may read only one chapter a day. Even as adults, a husband may read two chapters a day, while a wife may only read one chapter a day. • Our focus is not on how MUCH we read, but how CONSISTENTLY we hold onto His word.
2. Please ask others to keep you accountable for daily Bible reading and keep them accountable too. • An example would be posting a Bible reading table on the refrigerator showing how much progress each one has made.
3. Read at least one good book every month. If that is too much, then read at least one book every other month. Try to build a habit of reading.
4. Try to participate in every bible study opportunity at church.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글 - Edward Chung (대학생)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한 교회에 가기는 했지만, 적갈색의 큰 모자 안에 돈을 떨어뜨리고 예배를 드리던 어머니를 찾아갔던 일 외에는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제가 크리스천의 길을 걷는 데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초등학교 중반쯤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1999년 Fall Festival부터 교회에 더 자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티모시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고 시작했습니다.


프라미스랜드(초등부) 예배시간 중 저는 그저 순종하고 행복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은 저를 항상 강하게 감동시켰습니다. 티모시에 들어오자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었고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션시티 컨퍼런스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저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무엇인가가 저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움직여서 눈물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날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비록 좋은 날도 나쁜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어디에 있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어떤 일을 하실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을 뒤집어 엎으시고 저의 세계를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좋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확실히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신앙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겪었지만 그 이후로 저는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즐겁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설계



From a young age I never knew Christ. I was not born into the church. But I do remember attending Global Missions Church as a very young child but all I recall is dropping dollars into the big maroon hat and visiting my mother in service. But that had no impact on my Christian walk though. I began to attend church in the middle of elementary school because of friends who urged me to come. From the fall festival of 1999, I began to attend church more and more often. Upon entering Timothy, I then began to have the urge to become more intimate with God. During promiseland worship I always felt the need to raise my hands just in obedience and surrender. I always felt that I could sense his presence and that it always moved me so powerfully. As I entered timothy, I was opened to a new world; I was able to praise God and just worship him freely. I eventually accepted Jesus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during an Ocean City Conference. Something moved so powerfully in me that it brought me to tears, I could not hold it back. Now I know that it was the power of God's love that was so overwhelming. From that day I was changed. Although, I had my share of ups and downs, it is through God that I have become a better person. Quite frankly, I do not know where I would if I never ended up in church. I am blessed to say has has used me and given me the opportunity to serve him in so many ways. He has blessed me with the opportunity to preach and share the love of Christ to people in different nations. I don't I would have ever imagined what God has done in my life a few years back. God turned my life upside down and rocked my world: and I love it. In high school, I definitely struggled with a "rollercoaster ride" but since then I am currently striving for a life of excellence. A life that is pleasing in God's eyes; a life that

하신 삶을 말합니다. 길고 힘든 여정이 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여행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과 그것에 대해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번역: 오진이>

예수님을 계속 따를 것입니다


글 - James Han (대학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의 나라를 구하기 전의 제 삶은 몇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저는 힙합 음악을 우상시했고 제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집에서 엉망진창 제멋대로이지도 않은 아주 착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밥을 먹을 때는 조용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언제나 칭찬을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제 그릇의 밖은 깨끗했지만 안은 더러웠습니다.

저는 9학년 때부터 헬로쉽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티모시 행사들과 교회 사람들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9학년과 10학년 때는 거의 '선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11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인가가 제 삶에서 빠져 있었었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기 위해서 제가 창조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인생에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헬로쉽 교회에서 받은 가르침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어 할 때 교회가 저의 굶주림을 채워 주었습니다. 11학년의 어느 날 저는 복음을 들었고 제 온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영원만큼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위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거저 받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예수님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하나

God had set out for me to live. I know it will be a long and strenuous journey but I am up for it but one thing is for sure: my identity is in Christ and I have no doubt about it. 



My life, prior to living for God's glory and seeking His Kingdom, can be summed up in a few sentences. I idolized hip-hop music and I thought I was better than God. Externally, I was a very good kid who didn't get in trouble at school or wrecked havoc at home. I was the kid that parents always complimented because I was obedient to my parents and sat quietly while I ate. To sum it all up my bowl was clean on the outside, but was filthy on the inside. I started attending NCFC in 9th grade (I probably wasn't saved during that time) because I liked the youth group events and the people at church. I was pretty much a Sunday Christian during 9th and 10th grade. But then God started to change me in 11th grade. I started to become obsessed with the fear of death and felt as though my life was purpose-less. Something was missing my life because life was mediocre. I couldn't have been created and put on this earth just to live and die. There had to be more to life. I thank God for the teaching I received at NCFC during my high school years because I was fed when I was hungry and seeking to learn more about Christianity and Jesus Christ. I was presented the gospel sometime junior year and really took it to heart. I was challenged to think about my standing with God. Was I in danger of living eternity away from God's love and grace? I received the free gift of salvation that God offered to me and decided to work at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Christ. It was God who did everything. I boast in nothing, but Christ alone. For my reconciled relationship with God the Father was made possible

님 아버지와의 화해는 제가 받아야 마땅했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예수님을 계속 따를 것입니다.  <번역: 오진이>


by Jesus Christ who took the punishment that I deserved on the cross. I will continue to pursue Jesus Christ, seeking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기대합니다

글 - Julia Na (9학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헬로쉽교회에 다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극적인 순간이나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부모님에게서 배운 것을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과거 몇 년간 저는 제자훈련반과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자라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부를 때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수많은 기도 응답해 주셨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겪은 개인적인 체험과 제가 부딪혔던 단순한 문제들을 통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언제나 붙잡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 저에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언제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그분을 나타내 보이실까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보고 싶습니다. 

<번역: 오진이>



I was born into a Christian family and have been going to NCFC for all my life. I don't remember the exact time I accepted Christ, but I think I was in elementary school. It wasn't a dramatic time or anything, but more of me just believing what I learned on Sundays and what I have been taught by my parents.

During the past years, I can tell I have been growing in the Lord through discipleship classes and retreats and find it much easier to trust in Him. I know that he loves me so much and that he hears when I call on Him. He has answered so many of my prayers and has blessed me with countless blessings. Especially this past year, I have realized that I can count on God with everything because of personal experiences and simple problems that I have encountered. I know that Jesus

died for my sins because He loves me so much. I know that is something I can always hold onto. Now, I am really looking forward to when God speaks to me and reveals Himself in a way I have never experienced before. I am praying that he would give me the boldness and faith to live for Him. I am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ing what God has in store for my life. 



고린도로 보내는 4통의 편지

누가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 여러 지방으로 다녀가다 헬라에 이르러 세 달을 머물렀다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수개월에서 1년에 걸친 시간들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음을 떠올릴 정도로 참으로 힘들어하던 시간들이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도 힘들어했을까? 이 기간들에 일어났던 일들을 추정해보기 위해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4통의 편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 - 오장석



“소요가 그치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행 20:1-3)

누가는 에베소 이후 바울의 행적에 대해 짧은 몇 마디로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수개월 내지 1년에 걸친 시간들로, 특별히 바울이 힘들어했던 기간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기간들을 이해하기 위해 바울이 에베소를 기점으로 복음을 전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게 썼던 4편의 편지를 바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 서신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이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난 후로도 지속적으로 고린도에 관하여 궁금했었

다. 그러던 중 바울은 고린도로부터 온 사람들을 통해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음행, 탐욕, 우상숭배와 같은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 번째 서신을 보내었는데, 바울은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스러운 자들, 속이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바울은 고린도의 상황을 들으면서 고린도에 방문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을 거쳐 고린도를 포함하고 있는 아가야 지방을 가기로 생각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더불어 겨울을 지낼 생각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일정을 잡았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행 19:22)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고전 16:5-6)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비록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었다.(고전 16:8-9)

첫 번째 서신 이후로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말로 전해 듣거나 (고전 1:11, 16:17), 또는 서신으로 (고전 7:1) 접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던 여러 가지 논쟁점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은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고전 16:5) 기록하였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소스테네를 언급한다.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인물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다가 총독 갈리오 앞에 세워 벌을 받게 할 셈이었다. 그러나 총독 갈리오는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유대인의 고소를 기각시켜 버렸다. 이에 유대인들은 막가자는 듯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기 시작했지만 갈리오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이 일로 인해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건너왔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당시 ‘소스테네’라는 이름이 흔했던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다른 인물일 수 있다.

이 무렵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필요를 돕기 위한 돈을 모으고 있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며 고린도 교회에 혼란을 가져왔었다.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서로의 불화나 부도덕한 상황들로 인해 기금 마련에 차질이 생겼던 듯하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설명함과 (고전 9장) 동시에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주일마다 이를 위하여 수입의 일부를 따로 떼어 미리 준비하라고 권면하였다. (고전 16:1-4)

한편 마게도냐로 보내었던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행 19:22) 에베소로 돌아왔을 당시, 바울은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었는데 (고전 4:17), 바

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멀리하지 말고 평안히 보낼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가 고린도의 소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희망했다. (고전 16:10-11)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돌아와 전해준 보고를 받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로 가려고 했던 생각에서, 고린도를 먼저 방문해야겠다는 계획으로 바꾼 듯하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와 같은 점을 나타내주고 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론을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고후 1:15-17)

그런데 바울은 이 ‘**두 번째**’ 방문이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겠노라고 말할 정도였다. (고후 2:1) 아마도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접고, 에베소로 돌아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방문 중에 있었던 고통스러웠던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 번째 편지, 즉 ‘**눈물의 편지**’(고후 2:3-9, 7:12)를 디도 편에 보냈던 것 같다.

‘고통스러웠던’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일로 인하여 고린도의 방문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세 번째 ‘**눈물의 편지**’의 내용으로 보건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이었던 것 같다.

사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은 그리 즐거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일단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여러 분쟁들, 즉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던 상황들과 음란의 문제, 특별히 어떤 사람이 계모를 데리고 산다는 현실에 마주쳐야 했다. (고전 5:1) 또한 당시 로마 곳곳에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의식이 성행했고, 신전에서 이방신이나 황제를 위한 의식에 사용되었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징계와 꾸짖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서로를 향한 아픔도 생겼으리라 짐작된다. 때로는 바울에게 대들며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그런데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 이미 충분한 처벌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를 용서하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 그 사람이 낙담하지 않도록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보여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눈물의 편지’를 썼노라고 밝혔다. (고후 2:6-9)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면서 디도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로 떠나려고 했기 때문이다. (고후 2:12) 2차 전도여행 때에도 드로아를 방문했지만 당시에는 잠시 지나가는 거점이었기에 뚜렷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드로아에서 교회의 기반을 세우는 데 충분한 시간을 보낸 듯하다. 하지만 디도가 제 시간에 드로아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바울은 디도에 대한 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런데 단순히 디도에 대한 근심 때문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을 받았을까? 바울은 **‘아시아 지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했노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떠한 종류의 환난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환난이 **‘삶의 희망조차 없게 되고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고후 1:8-9)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각 도시에서마다 당한 고초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그러한 고초들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고후 11:26-29)

그야 말로 발이 닿는 곳마다 위험과 고통이 따랐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한 마디가 새롭게 다가온다. 다

른 것들은 다 접어 두더라도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다고 고백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품고 있던 염려와 근심이 오직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였을까? 어쩌면 그가 아시아에서 받은 환난이란 곧 아시아 및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교인들 간의 갈등과 반목, 사랑과 용서의 부족에서 오는 불화들이 많았던 것을 의미하지 않았을까? 아니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스와 아가야 즉, 제국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바로 서지 못하고 갈등과 불화 속에서 주저앉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마음에 바울이 짓눌려있었던 것은 아닐까?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문제들이 바울에게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와 고통이 되었을 것이다. 바울은 이런 와중에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였다.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바울은 궁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의 내용을 잘 소화하고 바른 길로 접어들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다툼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지. 초기 기독교 교회들이 서느냐, 주저앉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바울은 전심을 다해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한편 디도는 왜 제 시간에 드로아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일까? 아마도 날씨 탓이었을 것이다. 겨울에는 배로 지중해(에게해 포함)를 건너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무엇보다 겨울에는 정기적으로 무서운 폭풍이 일기 때문이다. 훗날 누가도 이와 같은 점을 기록하고 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즉, 율림 킵퍼)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행 27:9)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만났던 ‘유라굴로’ 폭풍으로, 2주일 가까이 표류했던 것에 대해 기록했다.

즉, 11월부터 2월까지 바다는 무척이나 위험한 곳이었다. 3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의 항해가 가능했지만, 여전히 위험을 각오해야 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려고 했던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겨울에 바다를 항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폭풍이 가장 위험한 요소였지만, 그 외에도 안개나 짙은 구름 같은 요인들도 있었다. 당시에는 해나 별의 위치, 또는 육지의 모습들을 통해 위치를 파악했기 때문에 안개나 짙은 구름은 그들의 항해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였

다. 결국 비교적 항해가 순조로운 기간은 6월부터 8월, 여름뿐인 셈이다. 그렇다고 여름에는 전혀 위험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가능성이 적을 뿐이지 언제, 어디서든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다.

1세기 당시에는 사람들만을 정기적으로 운반하는 여객선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화물을 위주로 다루는 상선들이 여유 공간에 사람들을 태웠다. 선주들은 매번 항해 때마다 최대의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물건과 사람들로 배를 채우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날씨를 늘 살펴서 좋은 날이 되려면 (좋은 징조와 더불어) 떠나야 했다. 따라서 배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떠날 수 있는 자유가 별로 없었다. 빨리 떠나고 싶어도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마냥 기다려야 했고, 조금만 기다려 주었으면 해도 떠나야 할 상황이면 배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여객선이 아닌 상선이라 함은, 배에 승객들이 머물 수 있는 객실이 없다는 말도 된다. 그들은 보통 갑판 위에서 지냈다. 많은 기록들에 의하면, 자주 배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텐트를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배에서 물은 제공되지만, 식사는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 승객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했다.

배가 파선되는 일 또한 희귀한 일이 아니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적었다. (고후 11:25) 배가 난파된 적도 세 번이나 있었고, 하루는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망망대해에서 배가 난파되면 구조요청을 보낼 방법도 없었다. 운 좋게도 때마침 저 멀리서 지나가던 배가 있다 하여도 배들은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길 두려워했다. 당시 사람의 목숨은 그리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구조되지 못한 경우도 허다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떤 식으로 구조되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가던 배에 의해서이든지, 파도에 떠밀려왔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한 번의 난파만을 경험했을지라도 다시 배를 타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세 번이나 배가 난파되었던 경험을 하고서도, 그 중 하루는 밤낮 바다에서 표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야만 했다면 배에 올랐다. 사실 바울 스스로 즐거워해서, 원해서 배를 이용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런 점에서 1세기의 바다 항해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편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육로로 가기에는 너무 멀어 다른 선택이 없는 경우에만 바다로 이동했다. 디도가 고린도에서 드로아로 가는데 아마도 배를 이용하여 가기로 계획했을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에서의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때가 늦가을이 되면서 배편 사정이 어려워졌던 것이다. 할 수 없이 디도는 바다가 아닌 육로로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으리라.

바울은 디도를 만나고픈 마음을 안고 마게도냐로 향했다. 아마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지나갔던 길을 따라갔을 것이다. 그런데 마게도냐로 옮겼다고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육체적



이태리 폼페이에 새겨진 조각으로, 1세기 경 지중해상을 오갔던 전형적인 상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울도 이와 비슷한 배들을 이용하여 아시아와 마게도냐 및 아가야 지방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으로도 힘들뿐 아니라, 교회에서는 다툼이 있었고, 바울 자신에게는 ‘교회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고후 7:5)

그러던 중, 마게도냐 어디에선가 바울과 디도는 만나게 되었다. 아마 디도 역시 바울의 2차 전도여행길을 따라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고후 7:6)

디도는 바울에게 ‘눈물의 편지’에 대한 답변을 들고 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앎이라” (고후 7:8) 사실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했었다. 그러나 디도의 답을 듣고는 바울의 걱정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눈물의 편지’로 인해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후 7:9) 교회가 주저앉을까 노심초사 고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같은 소식은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것이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바울을 염려할 뿐만 아니라 바울을 몹시도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으로 인해 바울은 무척이나 기뻐했다. (고후 7:7)

아마도 이즈음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와 더불어 인사를 건넨다. 아마도 디모데는 에베소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했던 듯싶다. (고후 1:1)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도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인들을 위한 연보를 언급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일 년 전에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금모금을 시작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고후 8:10-11) 마게도냐 교인들과 더불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해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는 글을 썼다. (고후 9:4-5)

그런데 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일까? 당시 마게도냐의 교회에는 빌립보가 포함되어 있다. 빌립보라면 부유한 상인이었던, 자주 장사 ‘리디아’를 떠올리게 된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에도 여러 번 바울을 도왔다. (빌 4:16) 이후 고린도에 갔을 때에도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을 도왔다. (고후 11:9)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은 부유했을 것이라고 단정 짓기 쉽다. 따라서 부유한 만큼 기부금도 쉽게 많이 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인들의 형편이 결코 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했다 (고후 8:1-2)’는 점을 강조하며, 작정한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치라고 권면한 것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연보는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 연보는 유대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의 선물이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초기에 감당했던 수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이방인들의 자원하는 희생으로 여겨기 때문이다.

연보를 모아오는데 대표 역할을 감당할 인물로 디도와 더불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한 형제를 택하였다. (고후 8:18) 그리고 거명되지 않은 또 다른 한 형제가 동행했다. (고후 8:22) 돈을 다름에 있어 객관성을 부여하는 의미도 있거니와 길에는 만날 수 있는 강도를 고려할 때 혼자보다는 당연히 여럿이 더 좋은 셈이다.

고린도 내에서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판단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하겠노라 전했다. 그러면서 재물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고후 12:14)

이후 바울은 누가가 언급한 대로 고린도를 포함하고 있는 헬라 지역으로 내려가 3달을 머물렀다. 

우간다에서 온 소식

글 - 최승암 선교사

우간다에 몰아친 '신종 플루'

한국에 '신종 플루'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들으며,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정말 가까워졌나 봅니다. 그동안 잠잠하던 이곳 우간다도 곳곳에 '신종 플루'가 확산되어 학교들이 휴교하는 등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으로 인한 인구 이동이 비교적 적은 아프리카 대륙이라 방심했었고, 예방 및 위생 교육이 부재한 탓에 질병 확산에 대한 대책이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역사 동안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아온 이 땅에 주님께서 긍휼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신학교와 지방 목회자 훈련원

신학교의 2학기가 어느덧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위기와 난관들을 헤쳐가면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교수/강사 워크숍, 영성 수련회, 축제 등의 굵직한 행사들이 남아 있어 기도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행사들을 통해 신학교 공동체 전체가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이번 학기에 신학교 개발 계획을 위한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여러 시설 확충, 장비 구입, 도서관 확장 등의 프로젝트를 위한 인력과 재정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박영웅 선교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좋은 결실을 주시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한편, 토요일마다 지방으로 나가 개설하는 '지방 목회자 훈련원'도 2학기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기초반과 '교회 성장학'을 통해 학문과 목회 현장의 연결고리를 찾는 상급반이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공식 교육의 기회가 적은 지방 목회자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도움과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맡고 있는 목양지가 더욱 풍성하게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단기 사역자, 이보림 자매

음악학교 강의를 위해 지난 8월에 이곳에 온 보림 자매 (대구 내일교회 찬양대, 이철우 집사님의 장녀)가 열심히 사역에 임하고 있어서 얼마나 귀한지요. 음악 이론이 부재한 아프리카 실정에서 보림 자매가 선보인 이론과 실기의 통합 교육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친구 혹은 자매로서 학생들과 정을 나누는 귀한 교제를 통해 피차 도전과 격려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학교 강의 외에도 선교사, 선교사 자녀들의 피아노 교습 및 반주법 교육 등을 통해 모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적응 초기의 여러 어려움들을 통과한 후 이제는 베테랑 선교사가 된 듯, 아직도 여전히 상존하는 어려움들을 얼마나 의연하게 대처하는지 모릅니다. 우간다에 처음



지방 목회자 훈련원을 방문한 보림 자매와 상급반 훈련생들



올 때는 백옥 같던 발이 벌레 물린 자국으로 온통 뒤덮인 것을 보면 안쓰럽긴 합니다만, 참으로 자랑스러운 귀한 딸입니다.

가족 소식


제가 선교부의 대표로 섬긴지 4년째입니다. 이제는 선교부의 앞날을 내다

보며 후배 선교사들의 리더십을 장려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선, 후배 혹은 선, 신임의 차별 없이 선교부의 모든 선교사들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완수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내 박주리 선교사는 한동안 팔이 저려서 고생했으나 스트레칭 체조 및 자세교정 운동으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최근, 빈대를 비롯한 각종 벌레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 곤욕을 치루었지만, 지금은 모든 상황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기도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찬이는 미국의 대학에 잘 적응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학업 외에도 오케스트라, 재즈 밴드, 럭비부, 성경공부 모임, 아르바이트 등으로 아주 바쁘지만 활기차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사고로 앞 이빨이 부러져서 붙인 적이 있는데, 최근 럭비 시합을 하면서 다시 부러져 임시로 접착했다고 합니다. 방학 기간에 한국에서 치료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찬이를 영육 간에 강건하게 붙드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원이는 최근 학교의 학생 부흥 집회를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주님의

사역자가 되려는 결심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대학 지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원이의 앞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주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귀한 일군으로 키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09년 11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최승암 선교사 드림

헬로 씬
 바이블
 아카데미

“기독교 교리”
 Week1. 성경(Bible)
 Week2. 하나님(God)
 Week3. 예수님(Jesus)
 Week4. 성령님(Holy Spirit)
 Week5. 구원(Salvation)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18)

강사: 김원기 목사 외
 장소: 메릴랜드 캠퍼스 워십센터
 일시: 2010년 1월 3일(일) ~ 31일(일)
 매주일 오후 3:30
 * 저녁식사 및 베이비시팅 제공됩니다.

숨겨진 땅 다게스탄의 신속한 복음화를 기대하며...

부산의 절반 인구임에도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민족들이 무려 38개나 살고 있는 민족박물관과 같은 다게스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전쟁과 이슬람의 영으로 아파하는 다게스탄에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고 계신다. 숨겨진 땅 다게스탄 가운데 그분이 이루실 신속한 복음화를 기대한다.
글, 정리 - 유종우



러시아 남쪽 흑해와 카스피해를 가로지르는 ‘카프카스’라는 산맥이 있다. 카프카스 산맥의 북쪽을 ‘카스피창’이라고 하는데, 이곳 카스피창에는 러시아의 7개 자치공화국, 170개 민족, 6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러시아와 아랍의 다리이고,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자리에 위치한 카스피창은 오랜 역사 가운데 기독교, 정교회, 그리고 이슬람이 만나 민족 분쟁과 영적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러시아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90% 이상이 이슬람이며, 러시아에 의한 기독교 강제 개종의 상처로 그들의 정체성을 오히려 이슬람에서 찾고 있다.

카스피창의 동부에 ‘산악의 땅’이라는 뜻의 다게스탄 공화국이 있다. 이 다게스탄은 그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국토의 4분의 3이 산지이며 남부 지역은 높은 산악지대이고 북부 지역은 평원을 이루고 있다. 국토는 남한의 절반 크기이며, 인구는 약 260만 명(부산 인구의 절반 정도)이고 이렇게 작은 땅에 38개의 민족이 살고 있다. 다게스탄은 공식어로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바르, 다르긴, 꾸믹, 레즈긴, 락, 타바사란, 노가이 민족 등 38개의 민족들이 각각의 토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다게스탄은 카스피해 서쪽 해안에 위치한 ‘마하취

칼라’를 수도로 하고 있는 러시아내 자치공화국이다. 마하취칼라에는 약 37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산과 바다와 온천이 공존하는 자연 도시이다. 마하취칼라는 좁은 해안지대를 따라 남북이 교통하는 중심이 되고 있고, 카스피해의 값싸고 질 좋은 캐비어(철갑상어 알)를 비롯한 수산 자원이 집중되는 상업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

다게스탄에 종교와 문화가 유입되는 중요한 통로로는 제르벤트(인구 9만 5천 명 중 아제르바이잔 30%, 레즈긴 26%, 타바사란 14%)를 꼽을 수 있겠다. 제르벤트는 페르시아어로 ‘철대문’의 뜻을 지니고 있다. 2003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국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나린칼라’성은 높은 산에서부터 카스피해까지 뻗어 있는데, 제르벤트라는 도시는 성벽과 성벽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 고대 거대 제국들은 제르벤트가 가지는 군사적, 경제적 가치(실크로드의 마지막 관문)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이 도시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제르벤트에는 이슬람 5대 사원 중의 하나이며,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 사원인 금



제르벤트 나린칼라성.

2003년에 유네스코에 의해 국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요 사원이 위치해 했고, 7세기 초 하자르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아랍 칼리프의 군인들 40여 명이 묻혀 있는 무덤은 이슬람 성지로 여겨지고 있어 순례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게스탄의 종교]

AD 4세기에 비잔틴과 그루지아의 영향으로 기독교를 상당히 일찍 전해 받았으나 7세기경 아랍과 이란의 영향을 받아 16세기에는 거의 이슬람화 되었다. 현재 이 땅에는 1300개의 이슬람 사원과 33개의 이슬람 신학교가 있다. 다게스탄은 소비에트 연방 시절 이슬람 사원 폐쇄 등의 억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을 고수해왔고,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로는 터키나 중동 지역의 도움을 입어 이슬람 부흥을 위해 달려왔다. 그러나 이 척박한 땅을 섬기는 선교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참으로 일꾼이 부족한 땅이다. 다게스탄은 갈급한 영혼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는 다게스탄의 수도인 마하쉐칼

라에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11:9)’라고 외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는 450여 성도, 53개의 가정이 모이는 복음주의 교회인 ‘호산나 교회’를 세우신 일이다. 이 교회는 아바르 민족 출신의 한 목사님이 1993년에 예수님을 만나고서 러시아 침례교회에 출석하다가 이슬람 배경의 다게스탄 민족들을 대상으로 한 다민족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4년 한 미국인 사역자와 함께 자기 가정에서 모임을 시작하여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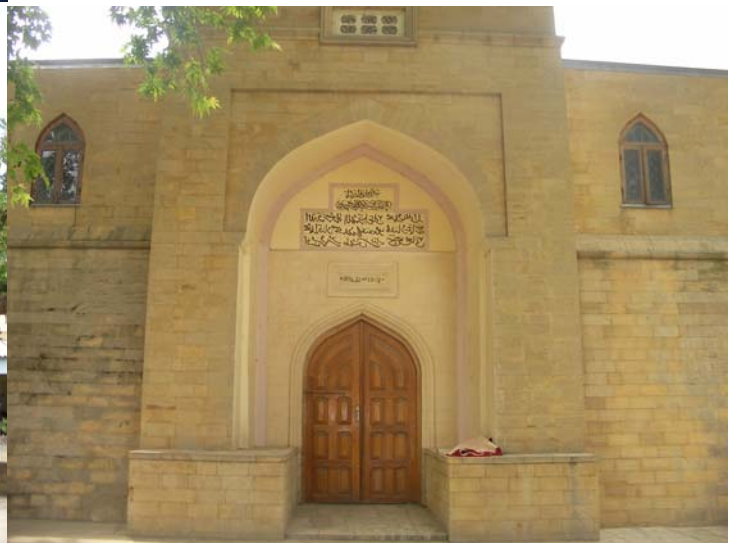
호산나 교회는 1998년부터 셀 그룹을 시작하여 1999년부터는 다게스탄의 다른 도시로 사역자들을 파송하기 시작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수많은 핍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힘써서 현재는 아바르, 레즈긴, 다르긴, 락, 타바사란, 꾸믹, 노가이, 짜후르, 체첸, 아제르바이잔, 루똔, 아굴, 안디, 보틀리호, 베취쎌, 따파르, 추바쉬 민족 등의 이슬람 배경의 성도들이 있고, 러시아,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민족 등의 정교회 배경의 성도들도 있어, 30개가 넘는 민족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은 “요한계시록 7장의 보좌 앞에서의 찬양을 보여주는 듯하다”고 현지 선교사님들이 전해오고 있다.



(왼쪽 위) 제르벤트에 소재한 이슬람 5대 사원 중의 하나이며,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이슬람 사원인 ‘금요 사원’의 입구

(왼쪽 아래) 금요 사원 안 풍경
오른쪽에 무슬림들이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얼굴과 손을 씻는 장소가 보인다

(아래) 금요 사원의 이슬람 예배 처소 입구



[다게스탄의 역사]

다게스탄은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동방 정교회 신앙이 유입된 적도 있으나, 7세기 아랍의 지배를 받으며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시작하여 10세기 셀주크 투르크, 13세기 몽골과 금호르드 제국 (노가이 민족의 조상), 16세기 오스만 투르크 제국, 18세기에는 페르시아인의 지배를 받는 등 계속되는 이슬람 제국들의 영향 가운데 놓여 있었다.

1804년에 시작된 러시아와 이란 사이에 있었던 전쟁 후에 다게스탄은 러시아에 편입되었고, 그 영향으로 러시아 정교회가 미약하나마 일부 전파 되었지만, 다게스탄의 대부분은 무슬림이다. 다게스탄의 수많은 종족 집단들이 언제부터 다게스탄의 산악지대에 정착해 살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그들 중 일부는 BC 10세기 이전부터 살았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 1830년에서 1840년까지 아바르 민족 출신인 다게스탄의 2대 이슬람 종교 지도자(이맘)였던 샤밀을 중심으로 체첸과 함께 러시아에 강력하게 대항하여, 소수민족들이 연합하여 독립을 위해 투쟁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19세기 말에는 수백만 명 죽임을 당하거나 오스만 제국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는 아픔을 가지게 되었다. 1921년 러시아는 다게스탄을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으로 지정하였고, 1930년대에 들어서는 집단농장 시스템 도입을 위해 다게스탄인들이 강제로 이주되었고 재정착되기도 하였으며,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평지에 산악 사람들을 정착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계속되었다.

1990년대 초, 다게스탄에서 또 다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이 운동은 1991년 4월 최고조에 달했으며, 러시아 연방공화국 54개국 가운데 39개국의 국가가 다게스탄의 독립주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활동이나 역할에 있어서는 성과가 없었다. 1998년 4월 다게스탄 분리주의 세력은 1999년 12월 러시아의 총선과 2000년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안해질 러시아 정부를 틈타 바사예프 체첸 반군 사령관을 중심으로 다게스탄 영내를 침입 신생 독립국 '체첸 다게스탄 공화국'의 건설을 공포하였다. 이는 다게스탄을 이슬람 국가로 세움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의 러시아 영향력을 분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분리 독립 세력은 9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폭탄 테러로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

최근 몇 년 전부터 카스피창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고 있는 사역 중 하나가 ‘Power & Mercy (P&M)’ 사역이다. ‘P&M’은 참으로 복음적으로, 또한

모든 부분에서 소외된 한 종족을 향하여 다가가 그들을 알아가며,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던 마음, 마 9:35-36)으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주께서 주신 능력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눅 9:1-2)으로 우리의 가진 모든 도구를 이용하여 연합된 마음으로 그들의 영육을 치유하며 십자가 사랑의 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믿음의 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총체적인 사랑의 행진이다. 우리는 가끔 긍휼의 마음을 오해하는 때가 있다. 이 마음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에게 구걸하며 손을 내미는, 물질적으로 참가난한 이에게 주머니의 동전을 주는 정도의 연민의 마음이 아니다. 이러한 것이라면 그들을 지나치고 난 후 곧 그들에게 향했던 마음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볍고 일시적인 긍휼의 마음을 베푸셨다면 아마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나사로가 죽은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 11:32-35) 단지 나사로를 사랑해서 우시는 것이라면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들은 즉시 우셨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단에 사로잡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리고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인간들을 보며 주님은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사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시고 계셨던 것이다. 이 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더욱 굳고히 결심하셨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다. 긍휼의 마음은 영혼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이며 끊임없이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십자가의 마음이다. 그런 긍휼의 마음만이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가을에 다게스탄 땅 가운데 있었던 ‘P&M’ 사역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진행되는 사역]

사실 처음 계획하기로는 다게스탄의 남부 다른 한 지역, L민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진행 되었다. 참여하는 팀들에게나 준비하는 현장 사역자들에게나 그리고 현지 관료들에게나 아무런 문제없이 사역준비가 척척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오히려 현지 관료들이 적극

적으로 도와주어 팀이 오기 1주일 전까지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우리를 반겨하던 현지 최고 책임자가 갑자기 설득할 수 없이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나왔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번 ‘P&M’ 사역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다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한 현장 사역자들 모두는, 주님의 새로운 인도를 구하며 주님이 열어주시는 곳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시간에 최종 후보지 두 곳을 위해 손 모으며 타진하던 중 구니브 지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강하게 받게 되었다.

실로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곳은 바로 사람들이 몇모르고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까지 하던 곳인, 38개의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는 산악의 땅, 다게스탄의 산골, 구니브 지역이었다. 아바르 민족은 다게스탄에서 가장 큰 토착 민족으로 현재 76만여 명이 산악을 근거지로 살고 있다. 이맘 ‘샤밀’을 비롯한 이슬람 귀족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맞서 오랜 카프카스 전쟁을 이끌어 왔던 아바르 민족은 ‘구니브(-아홀고)’라는 지역에서 마지막 혈전을 치루며, 19세기 결국 러시아에 복속되고 말았다. 구니브라는 지역은 그들이 끝까지 처절하게 투항했던 곳으로 아바르 민족에게는 마음의 고향이고, 성지이다.

짧은 통보였지만 구니브 지역의 현지 책임자는 흔쾌히 우리를 맞이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나중에 그 약속의 표시로 사역이 시작되는 첫날 팀에게로 찾아와 자신의 불편한 부위를 치료받고, 또 두 자매로부터 기도까지 받고 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증표는 그 이후 곧바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들이 흠어져 팀으로 있는 곳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다. 다게스탄의 관문 민족인 아바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며,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이다.

[이미 택하여 놓으신 평안을 받을 사람들]

조금은 정치적으로 보였던 지역 보건 최고 책임자는 우리를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현지 관료 최고 책임자의 권위에 눌러 그저 그 지역의 다른 작은 마을 두 곳을 겨우 소개해 주었다. 그래서 한방 팀과 치과 팀은 구니브에서, 그리고 내과 1팀과 문화, 어린이 팀은 ‘SAG’이라는 지역을 기점으로, 또 다른 내과 2팀과 물리치료, 수지침 팀은 ‘KOR’라는 지역으로 흠어져 사역을 하기로 마침내 결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 때 구니브 병원에 정전이 되어 치과 팀마저도 ‘SAG’ 지역으로 함께 가기로 점심때가 되어서야 결정되었다. 멀리

서 오랜 시간 달려왔건만, 진료할 지역이 결정되는 이 과정은 많은 팀원들을 지치게 하였고, 영적으로도 지치게 하는 기다림이었다. 이윽고 우리가 마을을 찾아갔을 때, 현지인들은 기다린 듯이 우리를 맞이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자기의 아픔과 삶의 짐을 들고 찾아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우리를 찾아온 환자들의 대부분이 처음부터 침이나 약보다 우리 중보 팀들이 해 주는 기도에 더욱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을 잃은 현지 아주머니 한 분은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받아들이고 회복되어져 그 아들이 잃은 슬픔에서 깨어났다. 또 10살 때 소경이 되어 다른 가족의 손에 이끌리어 온 한 자매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소경을 치료해주신 장면과 복음을 듣고, 그 보이지 않는 큰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며 영의 눈을 뜨게 되어, 아주 밝은 모습으로 다음 날 다시 찾아왔다. 뿐만 아니라, 진료와 여러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이들은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고, 영적인 회복이 찾아와 그분을 바라보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었다. 이들은 주님이 이미 택하여 놓으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기다렸던 평안을 받을 사람들이었다. 마치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에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알려주신 주님의 음성과도 같이 말이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우리 각 팀 모두는 복음을 나누는 일은 물론이고, 현지인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는 동안이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아픔과 삶의 어려움 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었다. 허리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한 할머니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 통증이 즉시로 치료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 할머니는 다음 날 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기도를 받기 위해 의료진을 찾아왔고, 복음을 듣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2년 전에 방문했을 때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의심의 눈빛으로 이것저것 물어 보았던 한 현지 의사는 이번엔 자신이 고칠 수 없었던 한 환자를 오히려 우리에게 소개하며 저녁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몹시 굳어있던 가정에 팀이 평안을 기원하자 모두가 밝은 빛으로 나오는 듯 환하게 변하였고, 환자를 보고 기도하며 치료를 해주었을 때, 움직이지 않았던 손이 올라가 다들 놀라고 말았다.

육신으로는 피곤하나 영으로는 기운찬 하루의 일과가 끝난 후, 우리에게 붙여 주셨던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내일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다른 지역으로 간 문화사역 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30년 동안 허리를 잘 못 쓰는 환자 가정에 초대받게 되었는데, 의료진이 다음날 꼭 와서 치료해 주기를 부탁하는 요청의 전화였다. 흔쾌히 그러겠노라고 하고 다음날 현지인을 찾아갔을 때, 이미 문화 사역 팀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환자를 만지셨기에 단 한 번의 일침으로, 아니 이 일침마저도 의미 없이, 그는 허리를 거뜬히 일으키며 회복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카스피, 추수할 일꾼, 부흥]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난한 심령들, 순종, 섬김과 사랑, 기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치유, 복음, 하나님 나라, 말할 수 없는 은혜, 이 모든 일이 불과 5일 만에 다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추수할 일꾼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해하게 된다. 영적인 추수는 자연의 추수의 법칙과는 다르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추수할 일꾼으로 나아가 그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기만 하면, 뿌리면서 또 바로 거두어 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이미 택하여 놓으신, 준비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38개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숨겨진 땅 다게스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전쟁과 이슬람의 영으로 아파하는 다게스탄에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일하고 계신다.

지난 겨울 다게스탄을 다녀오신 분이 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 현지인의 어깨를 주물러 드린 적이 있었다. 어디서 배웠냐고 묻길래 어머니 어깨를 주물러 드리면서 배웠다고 했더니 다음 날 초등학교 교사인 현지인 친구를 데리고 와서는 그 분에게 그 친구도 주물러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자기 친구에게 그 분을 소개하기를 “이 분은 까레이(Korea)에서 왔는데, 어머니가 맞사지 닥터시고, 이 분은 그 어머니한테서 배운 분이서”라고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부모님 어깨 주물러 보셨죠? 이처럼 다게스탄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작은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에도 매우 고마워하며, 그들을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게스탄에서는 누구든지, 그리고 무엇으로

든 섬길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이미 택하신 각 민족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것이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50여 개 이상의 민족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카스피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카스피 부흥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며 나아오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 14:12-14)

부산의 절반 인구임에도 38개라는 엄청난 민족들이 살고 있는 민족 박물관과 같은 다게스탄. 숨겨진 땅 다게스탄에 신속한 복음화가 일어나길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기독교 국가(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망가진 자신들의 삶에 대한 슬픔과 가족들을 잃은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이로 인해 생긴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오해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가려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들의 삶의 소망을 둘 수 있게 하소서.

2. 다게스탄을 묶고 있는 이슬람과 전쟁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다게스탄을 섬길 많은 장단기 사역자들과 강력한 중보자들을 일으켜 주소서.

3.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인 호산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삼키려는 정사와 권세, 이슬람의 영을 파하여 주소서.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38개 민족에게 나아가 자생적 민족 교회를 세우며 초원길의 마지막 관문인 카스피창을 복음화하고, 예루살렘까지 전진하게 하소서. 

맥체인 성경읽기표

1월	가 정		개 인	
1	창1	마1	스1	행1
2	2	2	2	2
3	3	3	3	3
4	4	4	4	4
5	5	5	5	5
6	6	6	6	6
7	7	7	7	7
8	8	8	8	8
9	9, 10	9	9	9
10	11	10	10	10
11	12	11	느1	11
12	13	12	2	12
13	14	13	3	13
14	15	14	4	14
15	16	15	5	15
16	17	16	6	16
17	18	17	7	17
18	19	18	8	18
19	20	19	9	19
20	21	20	10	20
21	22	21	11	21
22	23	22	12	22
23	24	23	13	23
24	25	24	에1	24
25	26	25	2	25
26	27	26	3	26
27	28	27	4	27
28	29	28	5	28
29	30	막1	6	롬1
30	31	2	7	2
31	32	3	8	3

2월	가 정		개 인	
1	창33	막4	에9, 10	롬4
2	34	5	욥1	5
3	35, 36	6	2	6
4	37	7	3	7
5	38	8	4	8
6	39	9	5	9
7	40	10	6	10
8	41	11	7	11
9	42	12	8	12
10	43	13	9	13
11	44	14	10	14
12	45	15	11	15
13	46	16	12	16
14	47	눅1:38	13	고전1
15	48	1:39-80	14	2
16	49	2	15	3
17	50	3	16, 17	4
18	출1	4	18	5
19	2	5	19	6
20	3	6	20	7
21	4	7	21	8
22	5	8	22	9
23	6	9	23	10
24	7	10	24	11
25	8	11	25, 26	12
26	9	12	27	13
27	10	13	28	14
28	11-12:21	14	29	15

헬로쉽의 어느날

2009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행사일정

- ◆ 1월 3일 (일) - 31일 (일)
바이블 아카데미
매주일 오후 3:30
장소: 워십센터 (MD)
- ◆ 1월 22일 (금) - 23일 (토)
포토맥 캠프 수양관 (MD/VA)
- ◆ 2월 7일 (수)
그랑프리 행사 (MD)

